

“오징어 게임은 현실”…빛과 싸우는 채무자들



광주·전남 가구당 평균 부채 5290만원…3년 전보다 24.5% 증가
저소득 다중채무자 비중 광주 8.1%·전남 8%…전국 시·도 중 최고
청년층 소득 광주 3.5%·전남 4.2% ↑…부채 12.6%·16.8% 급증

‘당신이라면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겠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두고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다.
작품 속에서 수백억원을 거머쥐려고 목숨까지 거는 참가자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이다.
세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심화된 부의 불평등과 계급 갈등은 오징어 게임의 암흑 세계가 허구임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게 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쓴 ‘잔혹 동화’의 중심에는 항상

상 빛이 있다.
극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에 있다는 자료 화면을 내보내기도 했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 7월 기준으로는 57조6046억원에 달했다.
광주·전남 가구당 평균 부채는 5290만원(광주 6035만원·전남 4545만원)으로, 3년 전인 2017년(4250만원)에 비해 24.5%(1040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6.3%를 크게 웃돈다.
광주·전남에서 빚더미에 짓눌린 취약계층 비중은 광역시 중 최고다.
지난해 가계부채 가운데 취약계층 부채 비중은

광주 8.1%·전남 8.0%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 6.5%를 훌쩍 넘을 뿐만 아니라 경기(6.7%)와 부산(7.0%), 대전(7.1%), 전북(7.2%) 등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남은 지난 2019년(9.0%)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을 2년 연속 유지했다.
취약계층은 금융기관에 3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 이면서 연 소득 2700만원 미만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나이스)가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광주·전남 취약계층의 지난해 연체율은 각각 5.4%, 5.0%로, 평균 가계부채 연체율(광주 0.9%·전남 0.8%)의 6.5배 수준으로 높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경기 불안으로 가계대출의 질마저 악화됐다.
광주·전남에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차주 부채의 예금은행 비율은 56.8%로,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비은행권 부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저소득 차주 부채의 비은행권 비중은 64.3%로, 전년(60.5%)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예금은행 부채 비중은 39.5%에서 35.7%로 줄었다.
광주·전남 거주민 가운데 소유 주택이 2채 초과한 자는 지난 2019년 기준 광주 1만421명·전남 1만3528명 등 2만3949명으로, 3년 전인 2016년(1만9710명)보다 21.5%(4239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 30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 수는 10만4251명에서 9만9342명으로, 3년 새 4.7%(-4909명) 감소했다.
지역 30대 이하 청년층의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광주 3.5%·전남 4.2% 증가할 동안 부채는 광주 12.6%·전남 16.8% 급증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일확천금의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광주·전남지역 로또복권 연간 판매액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구매액은 2016년 6만1700원에서 2017년 6만6500원, 2018년 7만1900원, 2019년 7만9500원으로 최근 3년 새 28.8%(1만7800원) 늘었다. 지난 한 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경신이 예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 ‘SNS 광은스타’ 시상



올해 세 번째 열린 ‘광주은행 SNS 광은스타 시상식’에서 송종욱(오른쪽 7번째) 은행장이 우수 직원들을 시상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유튜브·인스타그램 두 부문 선정

광주은행 ‘소셜미디어 홍보왕’을 가리는 3회 ‘SNS 광은스타’ 시상식이 최근 열렸다.
광주은행은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펼친 제3회 ‘SNS 광은스타’ 시상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SNS 광은스타’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됐다.
올해 세 번째 치러진 공모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광주은행 캠페인 노래 ‘상생으로’를 부른 영상을 만들거나, 환경·사회가치를 높이는 ESG 활동 목표를 매달 달성해 인증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고객의 연령대나 관심사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수상작은 광주은행 계정의 인스타그램(kjbank_official)과 유튜브(광주은행TV), 페이스북(kjbanksns) 광주은행 공식 페이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은행은 ‘고객 대상 UCC 동영상 공모전’과

‘대학생 홍보대사’ ‘SNS서포터즈 광은인싸’ 등을 추진하며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4년 연속 1위 달성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기존의 틀에 박힌 정보전달식의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의 감성에 공감하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금융마케팅을 펼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브랜드 이미지와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년간 2060개사, 광주·전남 산단 떠났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을 떠난 업체가 2007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7년 1월~2020년 8월) 광주·전남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광주 1247개·전남 813개 등 206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 산단 해지업체는 전년(69개)보다 33.8%(23개)나 늘어난 91개였다. 올해 8월 기준 해지업체도 29개에 달했다.
반면 광주 해지업체는 2019년 131개→2020년 2개→올 8월 3개 등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5년 동안 신규 입주한 업체는 광주 3563개·전남 1007개 등 4570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광주 신규 입주업체는 573개로, 전년(230개)보다 149.1%(343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199개 업체가 광주 산단에 등지를 탔다.
전남은 지난 2019년 64개에서 지난해 55개로, 신규 업체가 14.1%(-9개) 감소했다. 올해는 51개 업체가 새로 입주했다.
지난 7월 기준 산업단지 가동률은 여수 93.4%, 광주첨단 86.3%, 광양 85.8%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빛그린(62.1%), 영암 대불산단(76.5%)은 전국 평균(79.0%)을 밑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판매액 100억원 돌파

9월 전년 동기 67% 성장

나주 산포면에 있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달성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부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최근 판매 100억원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센터는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개장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전남 친환경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남 학교급식 부문 등 지역 내 소비 37%의

2배에 가까운 63%를 경기·경북·대전 등 타 시도 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센터는 74개소에 이르는 대외 판로와 156개에 이르는 농가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로 개장 5년째인 지난 9월 전년 동기(60억)대비 67% 성장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100억원을 처음 달성했다. 연말까지 판매 목표는 150억원으로 세웠다.
양상대 센터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할 청년친환경 계약재배 확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더 체계적인 친환경농가 조직화 및 판로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지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만철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